

진안 운장산고로쇠축제 성황

관광객 7000여 명 다녀가 비빔밥 대동 이벤트 등 다채

제12회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진안군 주천면 운일암1일암 삼거광장에서 개최된 축제는 약 7,000여명이 다녀가 제법 차가운 비빔밥도 봄기운을 느끼기 위해 나들이 나온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첫째 날 오전 흥겨운 풍물 소리로 축제의 시작을 알렸으며 곧이어 증산 기원제가 이어져 급진 농사의 번영을 간절히 바랐다.

오후에 진행된 개막식은 이항로 진안군수를 비롯한 20여명의 내·외빈, 관광객 등이 참여해 축제를 한층 더 빛냈으며, 곧바로 사랑담은 비빔밥 대동 이벤트가 진행됐다.

11개 읍면을 상징하는 11개 고명파와 12회 축제를 의미하는 120인분의 비빔밥은 관광객에게 인기 만점



제12회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 기간 중 사랑담은 비빔밥 대동 이벤트가 열려 참가자들이 힘을 모아 비빔밥을 만들고 있다.

으로 비빔밥을 맛보기 위해 길게 이어진 대기 줄은 행사장의 열기를 집작게 했다.

이튿날은 산악회와 향우회 등이 참가한 명도봉 등반대회가 진행되어, 이른 시간임에도 행사장은 등산을 하기

위해 몰린 참가자들이 인산인해였다. 목적지까지 제법 가파른 길이었지만 해발 863m 명도봉에서 내려다보이는 주천면 소재지와 능선이 파노라마를 이루며 펼쳐져 참가자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군 주거형태 공동주택화 가속

비율 2005년 29.5%에서 2015년 38.0%로 증가

기업유치와 혁신도시 조성 등에 따른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으로 완주군 주거 형태의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14일 완주군에 따르면 2015년 10월 말 현재 완주군의 공동주택은 42개 단지 176동에 1만5234세대에 달했다. 이중 분양주택은 9759세대(31개 단지, 119동), 임대주택은 5475세대(11개 단지, 57동)이다.

이에 따라 완주군 전체 세대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38.0%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7891세대, 29.5%의 비중을 보인 지난 2005년에 비해 7343세대, 93.0%p 증가한 것이다.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답게 완주군의 주거형태도 단독주택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형태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현재 봉동읍과 고산면에 총 1045세대의 아파트 3개 단지가 건설 중이고, 앞으로 삼봉신도시(5211세대), 미니복합타운(3000세대) 등의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 계획인 점을

고려하면, 이같은 공동주택 주거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완주군은 주민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거가 늘어남에 따라,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복원을 목적으로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을 민선6기 들어 전개하고 있다.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은 주민 공동체와 연합 공동체, 공동체 시설, 공용 시설물 관리, 온라인투표 서비스 사업 등 5개 분야로 진행되는데, 2015년 39개 사업 주민 공모로 시범 추진한데 이어, 올해에도 공모형식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군, 국가지질공원 인증 신청 주민설명회

진안군은 14일에 진안읍사무소 강당에서 진안-무주권 국가지질공원 인증 신청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라북도 자연생태과 최승현 박사의 발표로 국가지질공원 인증 제도와 그 효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최승현 박사는 국가지질공원 제도는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다른 자연공

원(국·도립공원)과는 달리 별도의 용도지구를 설정하지 않아 지역 주민의 행위 및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이해시키고, 지질공원 제도를 통해 지역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교육·관광 등을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국가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공원으로 2012년 1월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인증 조건으로는 공원 면적 100㎢, 지질명소 20개 이상 및 필수조건 25개를 이행해야 하며 인증기간은 고시일로부터 4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주도, 울릉도·독도, 청송 부산 강원 평화지역, 무등산, 한탄·임진강 7개 지역이 국가지질공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환경부는 2018년까지 5~6개 국가지질공원을 추가로 인증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 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주말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박산입과
063-430-2951

완주 프리포즈 축제 열린다

5월 21일 도립미술관에서

완주 프리포즈 축제가 오는 5월 21일 완주군 구이면 전북도립미술관 일원에서 개최된다.

완주 프리포즈 축제는 모악산과 경각산 구이저수지 등 기존의 관광지위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으로 모악산 일원을 관광명소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다.

군은 14일 군청 상담실에서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2016 완주 프리포즈 축제를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완주 프리포즈 축제에 대한 추진 경과 및 기본계획에 대한 토의, 자문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자문위원들은 관광·마케팅·연출·예술 등 각 분야 전문가 및 지역 관계자로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축제발 전방안 홍보, 핵심콘텐츠,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등 축제에 대한



자문 활동을 할 계획이다. 주행사장은 모악산 전북도립미술관 일원으로 누구든지 프리포즈와 관련된 각종 공연, 전시,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리마인드 프리포즈 및 프리포즈 커피를 위한 각종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국립공원

장수군, 문화재 안전점검 실시

장수군은 해빙기를 맞아 이달 말까지 관내 문화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장수향교를 비롯한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향토문화재 등 65개소로 군은 문화재와 담장 석축, 옹벽, 배수로 등 주변시설물의 침하, 균열, 기울기 등 변형 및 훼손여부를 점검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 및 방범시설, 전기·가스 안전관리 상태 등을 점검,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장수=고관호기자



장수군, 은어 치어 요천 방류

장수군은 수중생태계 먹이사슬 보호와 토종어종의 복원을 위해 14일 오전 11시 반암면 요천에서 토종어류 방류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공무원,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은어 치어 3만5천마리를 방류하고 지역 토종어종의 활성화를 지원하며 청정 장수하천 보전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물이 맑은 하천에서 서식하는 은어는 요천에서 성장해 9~11월 신록하게 되어 부화된 어린어는 인근바다로 내려가 겨울을 지내고 3~5월에 다시 요천으로 올 것으로 기대한다.

방류행사에 쓰인 치어들은 도민물고기 시험장에서 지난해 10월에 인공채란해 생산한 은어로 7~8cm까지 성장시킨 우량 치어로서 군은 치어들이 자라면서 내수면 생태계 활성화와 토종 수산자원 복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장수=고관호기자

진안군, 국내 자매도시 8곳 방문

진안군은 국내 자매도시를 방문해 상호 간 교류 내실화 방안을 협의한다.

군 관계자는 3월 15일과 16일 양일간 경기도 안산시를 시작으로 인천, 서울, 대구, 부산에 있는 8개 지자체를 방문하고, 교류 활성화와 확대를 위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자매도시 교류를 비롯한 홍보, 직거래, 축제, 관광 분야 담당자가 함께 동행 해 상호 도시간 실무자가 만나 보다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진안홍삼 및 농·특산물 직거래, 교류, 축제와 행사 시 주민교류 확대방안, 주요관광지 홍보 및 상호 도시 방문 장려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의견을 나눈다.

/진안=우태만기자



제주 부영 호텔&리조트

6월30일까지 할인 연장

부영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주 부영 호텔&리조트는 제주의 봄을 누릴 수 있도록 6월30일까지 고객특별요금을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가격은 호텔 8만원부터, 리조트 10만4천원부터 시작하며, 2인조식을 포함한 패키지를 이용할 경우 가격은 호텔 13만원부터, 리조트 15만 4천원부터 시작한다.

제주 부영호텔&리조트는 제주에 위치한 호텔 중 바다경관이 가장 뛰어나고 중문단지 내에 자리하며 주변 관광지 최상의 접근성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전 객실을 미취사형 객실로 운영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무주=전문선기자